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www.holyci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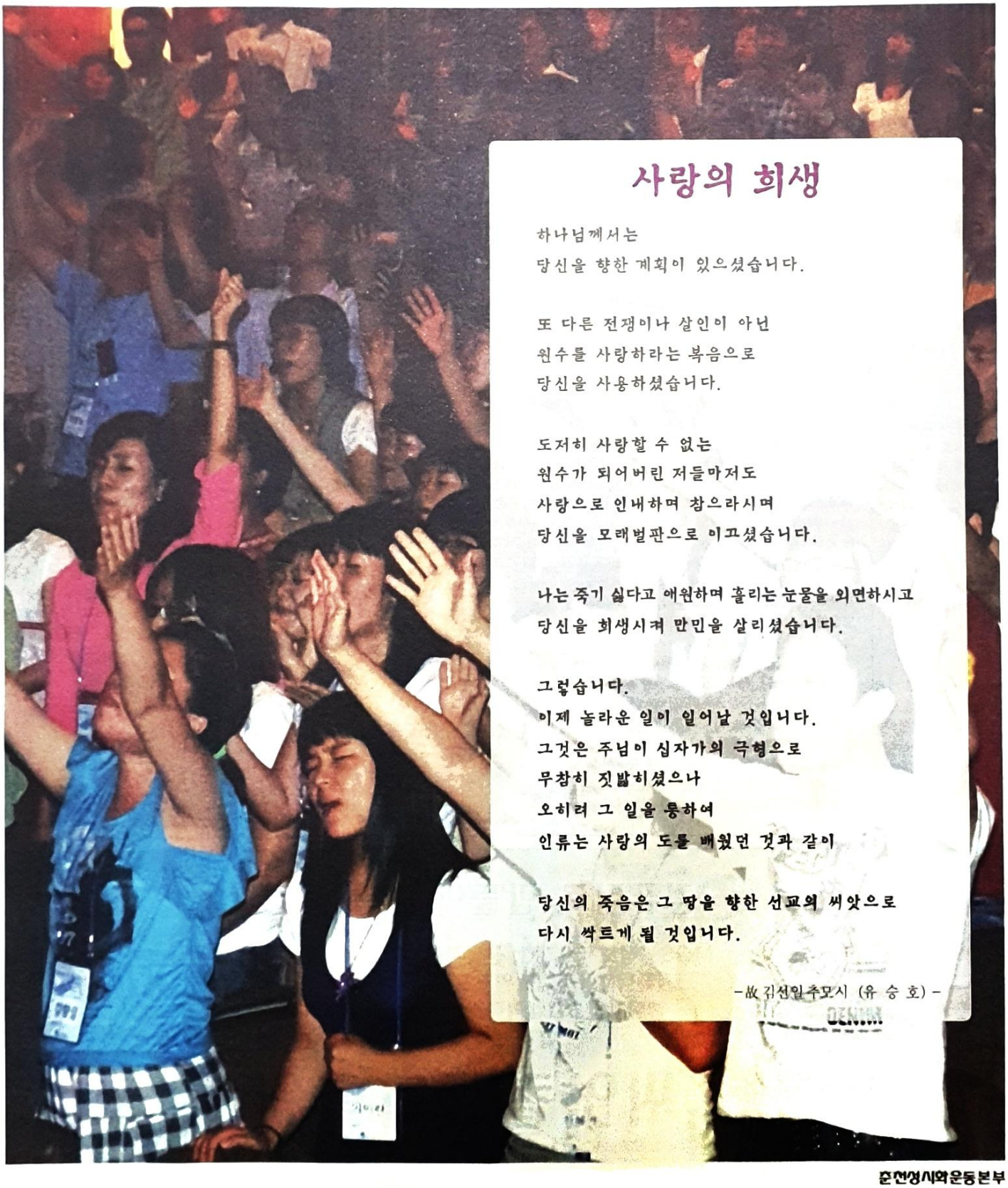
성시비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발행인 : 이 원 호

4. 춘천을 동양의 로마 중심도시가 되게하라 | 6. 한국교회 희망을 말한다 | 9. 우리 곁에 있는 나 대동산 | 12. 어떻게 죽을까? 갈 곳 없는 노인들

2007년 8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5호



사랑의 희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나 살인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으로
당신을 사용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린 저들마저도
사랑으로 인내하며 참으라시며
당신을 모래벌판으로 이끄셨습니다.

나는 죽기 싫다고 애원하며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시고
당신을 희생시켜 만민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극형으로
무참히 짓밟히셨으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인류는 사랑의 도를 배웠던 것과 같이

당신의 죽음은 그 땅을 향한 선교의 씨앗으로
다시 싹트게 될 것입니다.

-故 김선일 추모시 (유 승 호) -

특 집

2007년 여름, 평양에서의 하루

평양통신





김 형 석 회장
(한민족복지재단)

2007년 7월 15일 평양의 주일은 평상시보다 더 한가롭고 평화스러웠다. 차 없는 거리, 가족과 함께 휴일을 즐기러 산책 나온 시민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수십 차례 평양을 방문한 나의 관심을 모은 것은 정작 이 같은 도시 풍경보다 곳곳에서 느껴지는 평화에 대한 갈구였다.

교회로 향하는 일행에게 인내원은 "어제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아니 무슨 기사 말이오?"라는 반문에 다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판문점회담 제안 기사 말입니다."고 응답했다. 이어 "어제 IAEA 사찰단이 평양에 들어왔습니다."하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고는 남측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의견과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에 관한 관심까지 제기하였다. "왜? 이들은 이전에는 잘하지 않던 정치적인 대화를 유도할까?" 자못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론에 불과했다. 이날 칠골교회 예배의 준비된 컨셉은 평화였다. 먼저 대표기도를 한 이혜경 장로는 로마서 9장 3절의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찌라도 한이 없겠습니다."(북한판 성경)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조선 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족끼리 힘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호소하였다. 이어 설교자인 황민우 목사는 요한일서 4장 11-12절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주문했다. 심지어 "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교는 복음적이었으나 중간 중간에 정치적인 내용도 등장했는데, "조선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를 보장한다. 그런 점에서 주한 미군의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 교회는 자주 시비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북한 교회는 가짜 교회라느니, 목사가 대남 정치요원이라느니, 성도들은 강제 등원되고 있다느니…" 그러나 나는 그것을 국가 교회의 한계성으로 보지 가짜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제한된 자유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언제부터인가 나치치하 독일 교회에서 울부짖던 본회퍼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다. 이후 그들의 설교는 은혜로운 말씀의 감동으로 다가왔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였다. 실제 나와 동행했던 성도들 가운데 그곳예배에서 은혜 받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간증을 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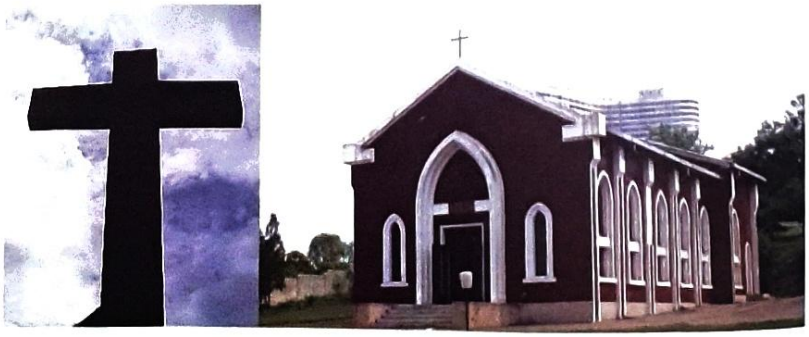
특히 이날은 내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나에게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내 메시지의 내용도 황 목사가 한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구호 대신에 남측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전한 것이 차이였을 뿐이다.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사랑과 성경 속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당의 지침인 평화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 설교 중에 나타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고민을 안고 있는 황 목사의 입장을 이해할 뿐이다.

이날의 설교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1-12절을 북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오. 하느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서로 사랑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합니다. 아직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계시고, 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 사랑만이 남과 북의 장벽을 허물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주셨음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자!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www.seeds21.co.kr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통일나눔터 분단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정신으로 복음과 사랑을 나누려는 춘천 지역 성도들의 자발적인 중보기도모임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꺼이 통일의 불씨가 되기를 소원하는 비전과 열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춘천을 통일한국의 중심도시가 되게 하라!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나눔터

❖김 수 복(거성교회 목사)

전엔 북한에 관심이 없었다. 안식년을 맞아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인도로 가려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보내셨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인 두만강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한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북한은 시련을 통해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반면 남한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다. 북한을 갔는데 북한 군인들이 나를 향해 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군인들은 나를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현재 기도하면서 북한선교에 기여할 길을 찾고 있다.

❖김 영 라(온누리교회 탈북자선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처음엔 인도로, 그 다음엔 아프카니스탄으로 인도하셨다. 아프카니스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선교의 훈련이 북한선교를 위한 것임을 강하게 말씀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북한선교파트를 맡으면서 많은 탈북자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은 북한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탈북자들을 섬기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 번째, 탈북자들은 탈북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정신적 혹은 마음의 질병을 얻게 된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그들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두 번째, 탈북자들을 선교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선교를 하는 분들은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해야만 한다. 통일이후 남편(전병길)과 함께 북한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싶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진정한 친구로서 이웃이 되고 싶다.

❖백 근 연(거성교회 사모)

남편(김수복목사)과 함께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오고 있다. 북한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눈물을 주신다. 이 눈물은 내가 흘리는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선교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는 것이다. 현재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한국어교사 자격증과 미용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

❖변 춘 자(장애아동사역, 소양교회 권사)

1997년 예수전도단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춘천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다. 그분은 남한교회가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첫째, 성경 둘째, 북한난민을 위한 대규모 난민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다. 부모님의 고향이 이북이라 어려서부터 이산가족의 아픔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나에게 이 집회는 강한 도전의 시간이었다. 나는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장애아동들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통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통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춘천은 통일한국시대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모쪼록 통일나눔터가 통일을 향한 기도의 불씨가 되어 더 많은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조 인 형(서울 영세교회 장로, 강원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

각 시대마다 시대정신이 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이 시대의 과제였다면 오늘의 상황에서는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분단된 나라들이 우리 한반도를 제외하고 다 통일이 되었다. 통일은 시대적 대세이다.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해야만 한다. 북한과 통일문제를 놓고 남한사회가 남남갈등으로 혼란스럽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증거이다. 북한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평화와 인권문제와 더불어 안보문제도 중요하다.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도해야 한다.

❖전 병 길(기업경영전공, 통일정책연구원)

춘천에서 테이나 자라나면서 분단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0살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비전을 주셨다. 북한선교와 기업경영이다. 이러한 비전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과정에서 통일 관련 공부를 하면서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리더쉽학교(고려대 이장로 교수) 간사로 협력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는 한국리더쉽학교를 섬기면서 만난 형제들과 "통일정책연구회"를 창립하고 통일이후 각 영역에서의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를 모색하고 있다. 춘천은 실용주의 학문을 강조하는 곳이다(강원대 이념:실사구시). 북한선교와 통일정책은 실용주의적 사상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통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북강원도의 협력이고, 또 하나는 통일선교단체의 네트워크화이다.

❖정 재 호(성시본부 사무처장, 늘사랑교회 목사)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말미암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있다.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이 되었는데 여전히 민족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세계평화에 위협을 주고 있다. 통일의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겠다. 춘천은 분단의 상처가 깊은 곳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나눔터의 기도와 섬김으로 춘천이 통일한국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심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호 성 숙(옴스쿨링사역, 나눔교회 집사)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상황과 평양과학기술대학(평양과기대) 설립에 관한 소식을 듣고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북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년 전부터 홈스쿨링을 하면서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통일세대를 준비하라는 강한 소원을 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다. 지하에서 상수도가 터져 물이 흘러넘치는데도 수많은 학생들이 별다른 관심 없이 막대기에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 꿈 내용을 들은 남편은 "복음이 흘러넘치는데도 관심이 없는 북한학생들"이 아닐까? 현재 남편(강원대교수)과 함께 평양과기대 교수사역 신청서를 접수시켜 놓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대로 살고 싶다. 이러한 나의 선택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진행자: 조영춘, 정재호 사진: 김미경]

통일나눔터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 거성교회(만천리)에서 모이며, 김수복,김영라,김진숙,백근연,변춘자,전병길,정재호,조인형,호성숙 외 다수의 회원들이 통일한국을 꿈꾸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의: 017-379-0191, 010-2030-8150]

은혜를 원수로 갚는 탈레반인가?

(탈레반과 이슬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공개서한)

[춘천성시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저는 한국 강원도의 아주 작은 성직자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면한 억류된 23명의 숭고한 영혼들 앞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당신들 앞에 나아가 글로나마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잘 알듯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당신들의 땅에 억류되어 생명의 위기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성직자인 배형규 목사는 당신들의 총탄에 의해 처참한 주검으로 들아왔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나라에 가게 된 것은 그 어떤 배후 세력의 조종이나 사주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었으며 더욱 정치적 음모는 더더욱 아니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들과 우리 모두는 당신들 나라가 길고 처절한 전쟁으로 인해 너무도 많은 고통 속에 무고한 피를 흘리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쟁의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슬픈 아픔 속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에 이를 위한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위험과 고통에 함께 동참코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민족상잔의 아픔에 의해 수백만의 죽음과 질병의 고통과 눈물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과 상처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을 많은 선한 나라의 도움과 아낌없는 지원 속에 지금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런 도움의 손길엔 당신들의 형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가다간 것은 이렇게 빈은 빚을 갚고자 하는 동지애적 사랑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특히 이번에 당신들에게 나아간 사람들은 치료를 위한 의료인과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한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찬송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협이나 억압이 아닌 사랑과 헌신의 순수한 마음이었으며, 최선의 사랑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이 혹시나 당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신앙적 열심과 헌신으로 민족적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 나왔었기에 이를 나누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들 나라에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질병 속에 고통 받는 당신들의 형제들을 돕기 위한 사랑과 화해의 사도들이었음을 잊어선 안됩니다. 이들이 당신들에게서 결코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해선 절대 안됩니다.

당신들은 높은 기상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주인공이며, 특히 사랑과 인류의 평화를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의 전사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평화를 위해 나아간 이웃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이슬람의 교훈입니까?

화해와 도움을 위해 나간 이들을 즉음의 위기로 위협하는 것이 탈레반의 명예입니까?

돕기 위해 나아간 연약한 여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당신들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도구로나 쓰려는 것은 도적이나 파렴치범들이나 하는 치졸하고 불명예의 행동이 아닙니까?

이는 형제로 나간 사람들을 원수로 갚는 민족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처참하게 훼손하는 범죄자들이나 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이슬람의 신앙이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겠지요?

당신들 탈레반은 예의도 없고 인륜도 모르는 도적의 무리밖엔 안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찌 습기롭고 명예롭게 백성들의 마음을 살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서로를 위해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종교인으로서도 이런 행동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들 모두는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들은 엄중히 모두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후에도 마음 깊은 사랑으로 아픔의 치유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도움과 필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지혜와 용기를 믿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의 당신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라!!!

2007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 춘천대회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는 성서한국과 춘천기독교연합회 · 성시본부 · 강원대교수선교회 · 청년포럼이 공동주관한 '2007년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에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시대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100여명의 통일관련 전문가들과 통일을 꿈꾸는 약 500여명의 청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그 열정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1. 대회 첫 문을 연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남북나눔운동) :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통일선교사로서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강조하였다.
2. 둘째 날 주 집회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 평화한국 상임대표) :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흐름의 인식의 중요성과 21세기 영성대국으로서의 한민족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3. 셋째 날 주 집회 피터 양 목사(통일실천가) : 북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인도주의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 지속적으로 북한선교에 헌신할 것을 역설하였다.
4. 대회 마지막 저녁 김동호 목사(높은뜻숭의교회, 성서한국 공동대표) :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 모두 준비된 통일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강조하였다.
5. 탈북자 주혜은(현 상지대 한의학과)의 남한살이 이야기
6. 통일축구대회 – 탈북청년 하나로축구단과의 경기
7. 강의실로 향하는 통일선교사들
8. 어린이 캠프 – 미래의 통일선교사들
9. 정치인 초청 정책토론회 – 현 국회의원들과의 진솔한 정치이야기
10. 영역별 선택강의 – 통일전문가들과의 만남
11. 춘천을 축복하며 – 기독교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12. 성서한국 통일대회 선언문 –2007 춘천언약.

(취재 김미경)

한복 침구 예단
線 혼례이야기
혼례의 새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팔호광장 사거리에서 강원대 후문쪽 120M
HP 016 347 6614 T 033 252 1525

춘천성시합창단
www.club.cyworld.com/ccacholr
(클럽에서 춘천성시합창단을 치세요)
그래디자인
간판,현수막
십자가네온
현황판,실사
(사진출력)
인쇄
(명함,포스터,팜플렛)
TEL : 033)255-8644
FAX : 033)252-6676
H. P : 010-6383-8228



한국 교회, 희망을 말한다

새춘천 교회는 지난 1974년 춘천 삼천동(현 강남동)에 설립된 중견 교회이다. 새춘천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꿈,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은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받은 은사를 각처에서 발휘하는 꿈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이다. 신재원 목사의 부임 이래 성숙한 제자훈련사역이 꽃피어 한국 교회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는 새춘천교회의 그 신선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새춘천교회(신재원 목사)편입니다

교회의 시작

새춘천교회는 정식 교회당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 삼천동(현 강남동) 인근의 방앗간을 기도처로 삼아 시작되었다. 그때가 1967년경. 당시 교회명은 '삼천등교회'였다. 초기 전임사역자들의 눈물어린 수고와 헌신 속에 세워진 교회는 신재원 목사가 부임할 무렵 약간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목회자도 반 년 이상 자리를 비운 상태. 성령 충만하던 성도들도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다. 당시 춘천 소양교회의 부목사로 섬기던 신 목사는 새춘천교회의 청빙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기도중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새춘천교회의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1985년 9월경이었다.

신재원 목사



새춘천교회를 담임할 뿐만 아니라 속한 교단 내에서 지방회장을 역임하고, 중견 목회자로 선(線) 굵은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신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따뜻한 카리스마를 연상케 하는 동안(童顔)의 신 목사. 그는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신 목사의 어린 시절의 꿈은 파일럿(pilot). 항공대학에 진학하여 하늘을 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그러나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음일까.



신 목사의 전임 목회자로서의 결단과 헌신은 군 입대 후에 일어났다. 어느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서시대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한다는 강한 소명감이 그의 영혼 속에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신 목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데에는 경건한 가계의 내력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는 조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며 성장했다고 신 목사는 회상한다. 조모는 기도의 여인이었으며, 의정부의 다락원교회를 비롯하여 3개의 교회를 친히 세우기도 하셨다. 신 목사의 부친은 신창서 목사. 신창서 목사는 6.25무렵 서울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성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강의하실 정도로 어학에 능통한 분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학교 강단에서 후진들을 양성하셨으며, 교장으로 퇴직하신 이후에는 목회에 대한 불타는 열의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셨다고 한다.

새춘천교회와 제자훈련

새춘천교회와 신재원 목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훈련"이다. 신 목사는 일찍이 한국의 교회들에게 제자훈련의 새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한 [CAL세미나]의 초창기 정회원이다. 1987년부터 이 훈련에 합류하여 지금은 강원지역 대표로 섬기는 신 목사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는 "제자론의 대가"이다. '성숙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만이 한국 교회의 희망' 이라고 외치는 신 목사와 새춘천교회의 제자훈련 사역은 지금 어디까지 온 것일까?

신 목사는 신학대학 시절부터 '제자도'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신학 졸업논문도 '제자훈련'을 주제로 다뤄졌다. 은평교회(사랑의교회 전신)를 섬기던 옥한흠 목사와의 교제도 이 무렵에 이루어졌는데, 옥 목사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제자훈련이라는 평생의 목회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가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라고 신 목사는 회상한다.

새춘천교회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자훈련은 1992년부터 시작된다. 20명의 훈련생을 시작으로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1기 제자훈련은 '철저한 제자훈련원칙'을 적용한 탓에 불과 5명만이 수료하였다고 한다. 2007년 현재까지 제자들의 교리와 생활을 가르치는 제자반 12기와 교회론과 소그룹 지도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역반 9기(사역반은 제자반을 마친 사람들로 구성)등 총 21기를 배출한 신 목사는 오랜 제자훈련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제자훈련의 지론이 있다. 신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자훈련의 성패는 '영적 지도자가 성육신(成肉身. incamation)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자훈련의 많은 실패 이유는 목회자 본인을 중심으로 훈련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훈련생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목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코치(coach)에 불과합니다. 코치처럼 옆에서 돕고 낮은 자세로 섬겨갈 때 진정한 제자훈련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춘천교회의 비전

새춘천교회의 최종 비전(Vision)은 '선교'이다. 특별히 교회와 신 목사는 북한 선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통일 이후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와 함께 통일기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 선교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연해주와 전 세계로 흩어진 한민족의 선교를 위해 교회가 뜻을 모아가고 있다고 신 목사는 밝힌다.

교회의 주요 훈련 프로그램은 기본 제자훈련 외에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1:1훈련, 소그룹 훈련, 성장 소그룹과, 봉사 소그룹, 멘토훈련, 대그룹훈련, 내면화훈련 등이 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양적 성장과 부흥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때에 제자도에 든든한 기반을 둔 새춘천교회의 비전은 춘천 교회들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앞날을 매우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하기에 충분하다. 신재원 목사를 중심으로 조선영 목사, 이칭섭 · 김종숙 · 이병건 · 조원순 장로 등이 섬기는 새춘천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 교회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선교세계관학교(MPS) 13기 안내

✚ 오리엔테이션 : 2007. 9. 1.(토) 오후 3:00~6:00
✚ 강 의 : 9. 8. ~ 12. 1. 매주 토요일 오후 3:00~8:00
✚ 장 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 연 락 처 : 033)253-3399, FAX 253-3399, www.mpscc.net
H.P 019-9903-1148, 011-363-0926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영원, 유일한 가치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크리스챤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선교세계관학교(MPS)는 보내는 선교사 또는 나가는 선교사로서 실제적인 안목을 갖춘 21C 지도자를 키워내는 과정이다. 2.3세계 선교,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를 향한 사역, 세계의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 10/40창, 전략적 동역관계 등의 비전과 전략들이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이 학교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품은 World Christian 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춘천 전도대학

학 장 김 성 수목사 016-343-2740
교무처장 강 맹 용목사 011-9740-8269

춘천 전도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30분 지정된 장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비전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역사자료

춘천 성시화운동의 태동(略史 4)



조 남 진 장로
(춘천성시본부초대본부장, 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신문 창간

춘천성시화운동은 운동본부 발족 첫해 성시주간 행사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가 성시운동을 위해 1천만원의 큰돈을 기탁해 주신 것을 비롯해 각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성시헌금이 들어왔다. 성시운동본부 초대 사무국장에 이상표 목사가 부임했다. 군 선교를 위해 헌신하던 이 목사는 인상 좋은 푸근함과 열정으로 성시운동의 실무 일들을 잘 추진했다. 후에 이 목사가 충북 경찰대학으로 전임되어 2대 사무국장은 월드비전 춘천복지관장인 이경준 목사가 맡았다. 이경준 목사 역시 남다른 친화성과 열성으로 초기 성시운동을 잘 이끌어 나갔다.

98년 이경준 목사도 동해복지관장으로 전임케 되어 후임 사무국장을 물색 중 도청 고위직 공무원 퇴직 후 신학교 과정을 마쳐 목사안수를 받은 조충환 목사에게 부탁했다. 조 목사는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사무국장 제의를 받자 좀 망설였으나 승낙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조충환 목사가 3대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였고, 글 솜씨가 있던 조 목사와 춘천성시신문을 발간해 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하여 성시운동의 비전을 나누는 '춘천성시신문'이 탄생케 된 것이다. 성시운동본부장 조남진 장로가 발행인, 조충환 목사가 편집인이 되어 월간으로 춘천성시운동의 활동상과 계획, 기타 교계소식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실었다. 거의 조충환 목사 혼자서 제작해 나간 것이나 다름없는 수고와 무보수의 봉사를 해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춘천성시신문은 어느덧 만 9년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발행되어 왔다.

성시운동의 활성화

97년도에 들어 더욱 활기 있게 성시운동이 전개되었다. 춘천기독의료인선교회(회장:유영호 장로)와 만나선교회(성도식당업자가 생겼고 강원도청 소년선교회도 발족되었다. 강원도교육자선교회(회장:이학규 장로)는 한국교육자선교회 37차 여름연찬회를 춘천에 유치, 강원도 백령문화관에서 전국에서 4백여 명이 모여 연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97년 9월 9일 창립 1주년 행사로 성령운동을 일으키며 세계최대의 교회를 이룬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초청 대성회를 개최하였다. 춘천 시민초청 대성회에는 양인평법원장, 이범찬안기부지부장, 조남진강원일보사장, 최종문강원은행장, 손은남농협지역본부장, 이돈섭강원도정무부지사 등 기관장을 비롯한 목회자 성도들 1만여명이 삼천동 야외음악당을 메웠다. 둘째 날 10일 오전7시 조용기 목사 초청, 춘천지역 기관장 조찬기도회가 두산리조트에서 열렸다. 기도회에는 류종수국회의원, 김병열교육감, 이범찬안기부지부장, 조석봉도경찰청장, 최상필도의장, 안형순도민일보사장, 김영태KBS총국장, 유수열춘천문화방송사장, 노병유CBS본부장, 최종문강원은행장, 배계섭춘천시장, 박민수교대총장 등과 임택창춘천기독교연합회장을 비롯한 윤철증, 김주환, 김광국 목사 등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했다. 이어 오전 10시 춘천시내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열려 조용기 목사가 오늘까지 목회해 오면서 겪은 간증을 전했다. 또 저녁 성회에는 더 많은 청중들이 모여 은혜받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호에 계속]





| 영혼의 양식

명품인생

– 고전 1:18–25



고 재 만 목사
(춘천평안교회)

요즘 나온 책 중에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에서 명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닌듯하다. 사람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 근본 욕망은 그런 명품으로 인하여 인생도 명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런 명품을 소유한다 해도, 또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최고의 학위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명품인생인가? 그렇다고 해도 그 명품인생의 유효기간은 70년이고 80년 아니겠는가? 그것이 진정 명품인생인가?

요즘 신문지상에 두 사람의 회심이 보도되었다. 전 TV 앵커였던 조정민 아나운서와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어령씨의 회심 사건이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24절에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 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지혜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진리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2)"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역시 강력한 자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면 우리 또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4-5)*

그러므로 바울은 고후 4:7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명품인생이 아니겠는가?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이니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강력한 자가 되어 주를 자랑하고 주를 증거 한다. 주를 자랑하고 증거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명품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명가 만두
명가 만두
※만두 名人이 빚은 20년 전통의 즉석 손만두
※테이크아웃수제 만두 춘천점
SINCE 1985
춘천 중앙로 농협 앞
☎ 242-8680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체 환영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평화를 조각합니다 - 조각가 이 운 식

강원도 기독미술인협회를 섬기고 있는 이운식(강원대 예술대학 명예교수, 한국조각가협회 고문, 동부교회 집사)회장과의 인터뷰

2007 강원도기독미술인 전시회
8월 31일 ~ 9월 6일 춘천미술관







강원도 기독미술인협회

2004년 10월 제1회 춘천 성시화 선교대회 때 동부교회에서 기독 예술계를 대표하며 강원도 기독미술인협회는 전시회를 연었다. 올해도 성시화 선교대회가 개최될 9월 기독미술인협회는 전시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을 예술의 세계로 이끌게 될 것이다.

기독미술인협회는 춘천을 위시로 한 강원도의 미술인들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미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더욱 질 높은 작품의 세계를 소개하며 토속적인 향토 풍경을 그려나갈 힘찬 믿음의 비전을 꿈꾸고 있었다.

초창기부터 이 협회를 이끌고 계신 이운식 회장을 만나 협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인생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미술인협회 태동에는 성시화운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운식 교수는 1996년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며 성시화운동을 위해 헌신하고 있던 양인평 장로와의 만남을 통해 간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삶을 청산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변화되기 시작했다. 양 장로의 "미술도 선교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도전과 격려에 힘입어 강원도 기독미술인협회를 추진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다. 자신의 전문분야인 미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에 소명감을 품게 된 것이다.

이 회장은 이때 주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많은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게 된다. 이에 양인평 장로를 위시로 한 성시화 지도자들의 격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원도 기독미술인협회'가 발족하게 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전시회

본 협회는 2007년 강원도 기독 미술인전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춘천미술관(241-1856)에서 그동안 회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이 전시회를 통해 강원도 미술인들의 풍성한 작품 세계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문화의 소개 및 기독문화 풍토 확산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의 만남을 겸하게 되는 이번 전시회는 작품판매도 겸하게 되는데, 전시회 '수익금의 30%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 기증하기로 하는 등 모든 회원들의 이웃사랑이 특별히 돋보이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작품주제는 '창세기 1장'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참여도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기나 긴 포로생활

이 교수는 강원도와 한국이 자랑할 미술계의 거목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삶속엔 민족의 아픔과 역경을 함께 딛고 온 특별한 일화들이 담겨져 있다.

이 교수는 반공포로 출신이다. 평안북도 영변이 고향인데 평양에 있던 1949년 11월 하순, 인민군의 강제징집으로 인민군에 입대 후 남한으로 내려오면서도 한국군 장교였던 형님을 찾으려고 서울 주소지로 가보는 등 백방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낙동강 전투 후 천안에 올라오다가 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거제도를 거쳐 부평에서 구사일생 탈출. 당시 장교이신 형님과 공군장교인 사촌 형님 등을 만나면서 포로 신분을 청산하고 새롭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운식 교수의 미술 인생

못다 한 공부를 위해 관성고등학교에 편입해서 졸업 후 대학진학을 고민했다. 군 복무중인 형님과 사촌형은 공사나 육사에 입학하기를 권면했으나, 각 나라의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목격한 그는 전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받는 것을 거부했다. 군이 아닌 학과를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작곡과, 국문과, 미대를 놓고 고민했다. 결국 미대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고, 그때부터 형님 댁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모델로 하여 입시준비를 시작했다.

마침내 서울대 미대 조소과에 입학하였다. 대학 졸업 후 1962년 원주 대성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시작으로 하여 1965년도에는 춘천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했으며, 1974년도에는 강원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2002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후학의 양성을 위해 전 생애를 불살랐다.

이 교수는 1958년도부터 지금까지 국전에서 특선 3번, 입선 14번을 수상했다. 1975년에는 추천작가, 초대작가가 되었다. 2002년 10월 미술 8개 분야 중 한명을 뽑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그를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1965년에 그는 사비를 털어 강원미술대상전을 만들고 강원지사에게 강원미술인의 등용문으로 지원해주기를 권유했다. 춘천 mbc조각전도 그의 작품이다. 전국규모의 조각전으로서 지방에서 이런 조각전을 갖기가 힘든데 조각 계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작가들이 참여해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국규모의 조각전을갖게 된 것이다.

1962년에 결혼한 부인 신경자 장로(동부교회)와 함께 1974년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기독미술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소망하고 있다. 앞으로 성경 속 주인공들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보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홀리클럽과 함께 시작되어서 올해 11회 전시회를 여는 강원도 기독미술인협회의 활동을 기대해보면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일환으로 열리는 작품전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소망한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성경묵상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는
예 담 교 회 이 전

담임목사 권 기 찬
☎256-8786
운교동 174-4번지(CBS 방송국 옆 대용빌딩 2층)

성경중심의 내적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남춘천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오 의 석
☎ 263-4321
CP 016-349-2743
퇴계동 한주금호아파트 앞 퇴계상가 4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우리 곁에 있는 山 - 대룡산

산으로 둘러싸인 춘천에 동남부를 감싸고 있는 가장 높은 산이 대룡산이다.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산이지만 춘천시민 중에서 아마 대룡산에 오른 사람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대룡산에는 특별한 기암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빼어난 계곡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근 시설까지 있는 경제지역이라 사람들에게 크게 인기 있는 산은 아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름난 산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소홀한 취급을 받는 듯하다. 이런 사정으로 대룡산을 소개하는 자료도 흔치 않다.

그러나 부드러운 능선, 곱게 쌓여 있는 낙엽, 짙은 숲과 향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계곡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마치 자애로운 할머니처럼 등산객을 감싸 안아주는 훈훈한 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룡산은 겨울 산행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유별나게 춥고 눈이 많은 춘천에서도 대룡산 만큼은 안심하고 오를 수 있는, 도무지 위험한 곳이라고는 없는 산이다. 눈이 온 다음날 대룡산의 눈꽃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쌓인 눈은 한량없이 부드럽고 등산로에는 눈꽃 터널이 연이어 있어 꽃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안개가 많고 추운 기후로 인해 대룡산의 상고대는 어느 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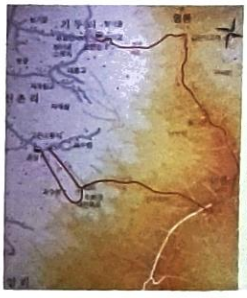
대룡산 이름의 유래

한 마리 우람한 용이 듬직하게 누어있는 형국이어서 '대룡산'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옛 수구리(水口里)라는 지명의 곳에 거대한 소양댐이 건설되어 용의 하체가 물에 잠겨 용이 물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룡산의 개요

높이는 899m. 춘천시의 동쪽을 에워싸고 있는 산으로 가리산(1,051m)에서 뻗어온 산줄기에 솟아 있다. 춘천시 등면과 동내면, 동산면, 그리고 홍천군 북방면과 화촌면에 걸쳐 있으며, 옛날엔 여메입산(女每立山)이라 했다고 한다. 아마 산세가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생겨서 그렇게 불려 졌던 것 같다.

등산로



산행은 춘천시내에서 오르내리는 코스만 이용되고 있다. 동내면, 거두리, 방아골에서 깁둔이고개로 올라 북릉을 타고 정상에 오르는 코스, 거두리 남쪽 고은리 곰실마을에서 서릉으로 정상에 오르는 코스가 대표적이다. 산행거리는 약 10km로 5시간이 소요된다.

등산로 1 : 거두2리 방아골로 가려면 춘천의 외곽도로인 46번 국도의 신촌1리의 4거리나 만천리 4거리에서 들어가야 한다. 거두2리 도로변에 농협창고가 하나 있다. 대개 이 창고 앞에 주차를 해두고 산행에 들어가므로 여기가 대룡산을 오르는 대표적인 산행기점이 된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26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면 거기가 바로 거두2리 산행산기점이다. 농협창고 앞을 출발하여 동쪽 방아골 마을로 다가가서 작은 다리(방아교)를 건너면(이 다리가 버스 종점이다) 길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고, 그 중 등산로는 왼편 길이다. 올라가는 도중에도 여러 번 길이 갈라지지만 똑 바로 직진하면 시멘트 포장의 찻길이 산 중턱까지 파고 들어간다. 그리하여 마을을 벗어날 즈음 길가에 이정표가 있고, 거기에 '대룡산 4.9km 1시간 50분'이라 적혀 있다.



등산로 2 : 고은리에서 올라가는 길은 역시 춘천의 외곽도로인 46번 국도상의 신촌리의 두 번째 4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대룡산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은리는 옛 이름이 곰실이라 하였고, 그 곰실마을 끝자락 버스 종점이 산행기점이다. 거기 버스종점 옆엔 작은 연못과 넓은 공터가 있어서 이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정상까지 3.4km 1시간 10분이 소요된다.

궁금증

★ 대룡산 정상은?

대룡산 정상은 특이해서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 세 개가 각기 색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봉우리를 A봉, B봉, C봉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대룡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A봉은 해발 899.3m로서 명실공히 대룡산의 정상인 녹두봉이다. 따라서 심각점(내평 25)도 A봉에 있다. 이 A봉은 북-서쪽 방향으로 시야가 트여 있어서 춘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북쪽으로는 용화산(878.4m)이 선명하다. 그리고 서북쪽에 우뚝 솟은 화악산(1,468m) 줄기는 가평의 명지산(1,267m) 쪽으로 펼쳐나가고, 서쪽에는 금병산과 삼악산이 여린 동생들처럼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A봉에서 동쪽으로 1500m 떨어진 곳에 해발 895m의 B봉이 있다. A봉이 정상이지만 넓지 못한데 비하여 B봉에는 넓은 공터의 헬기장이어서 쉬기도 하고 점심 먹기에도 좋은 곳이다. 동-남쪽으로 시야가 열려 있어서 동쪽으로는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소양호가 수즙은 듯 얼굴을 내밀고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요염하게 생긴 가리산(1,052m)의 바위봉이 유혹의 손짓을 하고, 날씨가 퀘청한 때는 멀리 설악산 줄기가 아련히 떠오르기도 한다. 남쪽으로는 연엽산과 구절산이 가까이 있고, 날씨가 좋을 때는 저 멀리 치악산(1,288m) 줄기까지도 조망할 수가 있다. 신년에 해맞이 장소로도 인기가 있다. 그리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C봉은 A봉의 남서쪽 1km 정도의 지점에 위치한 해발 850m의 봉우리이고, 정상이 상당히 넓고 남쪽은 큰 바위단애로 이루어져 있는 천연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다. 그런데 춘천 시가지에서 대룡산을 올려다보면, 해발 850m의 C봉이 더 우람하고 높아 보여서 정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사실 대부분의 춘천시민이 C봉을 정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착각은 C봉이 춘천시가지 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A봉은 뒤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밑에서 올려다보면 앞으로 기울어 있는 C봉이 더 높아 보이는 데에서 생긴 착시현상이다.

★ 대룡산 정상이 왜 깃대봉인가?

예전부터 정상이 뾰족한 봉우리는 대개 깃대봉이 아니면 칼봉 혹은 문필봉이나 삿갓봉이라 했고, 정상이 두루뭉실하면 녹두봉이라 했다. 그런데 대룡산 정상은 전혀 뾰족하지 않고 두루뭉실한데 깃대봉이란 영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거두리 방아골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대룡산 북단의 명봉(642m)을 깃대봉이라 했고, 대룡산 정상을 녹두봉이라 해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이다. 깃대봉이라 이름하는 봉우리가 곳곳에 있고, 그들의 공통점은 봉우리가 뾰족하다는 점이다. 깃대처럼 뾰족해서 깃대봉인 것이고, 녹두봉의 특징은 두루뭉실하다. 그래서 대룡산 정상을 녹두봉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야생화



◀ 앵초(앵초과, 여러해살이풀) : 화사한 분홍빛을 띠고 있으며 길가다 이 꽃을 보면 눈에 확 뜨일 정도로 아름답다. 앵초잎은 타원형에 잔털이 복실복실 나있으며 큰앵초는 잎이 넓고 각이 져 있다.(꽃말:소녀시절의 희망)



▶ 족도리풀 : 한국 · 중국 ·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산지의 나무그늘에서 자란다. 꽃은 4월에 홍자색으로 피고 잎 사이에서 꽃대가 나와서 끝에 1개의 꽃이 잎을 향하여 달린다. 열매는 8~9월에 결실한다.



◀ 투구꽃 :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란다. 높이 약 1m. 꽃은 9월에 자주색으로 피고 관상용으로 심는다. 유독식물로서 뿌리에 강한 독이 있는데, 초오(草烏)라고하며 약제로 쓴다.

[편집부 고재만]

자격증반

노인요양지도사 2급, 1급 · 장례지도사 2급, 1급
심리상담사 2급, 1급

◆모집기간 : 8월 30일까지
◆개강일시 :
- 노인요양보호사 2급 과정. 8월 27일(월) 오후 6시 개강 오리엔테이션
- 심리 상담사 2급 과정. 8월 30일(목) 오후 6시 개강 오리엔테이션
- 장례지도사 2급 과정. 8월 31일(금)

◆교육기간 : 14주 동안 매주 1회 4시간(45분 ×4)의 수업과 실습
◆교육장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수 강 료 : 각 과정 당 35만원(※단 교재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5만원 별도)
◆1급 과정 : 2급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소정의 과정(수업료 35만원) 수료 후, 1급 자격증 시험(수험료 5만원)에 합격한 이에게 1급 자격증 발급

성전(중 · 소교회) 꽃꽂이, 동양꽃꽂이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성전꽃꽂이반)
매주 토요일 오후 4시30분 (동양꽃꽂이반)
◆장 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강 사 : 엉금참 교수(송플라워 춘천지회장)
◆내 용 - 중 · 소 교회를 위해 소박이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꽃꽂이 장송으로 매주일 2만원 정도로 품위있는 강단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 오리엔탈적인 신비스런 미를 강조하는 동양꽃꽂이 장송으로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수 강 료 : 등록비 - 1만원, 과정당 수강료 - 월 4만원
(※단 교재 및 재료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별도)
◆자격취득 : 소정의 과정을 필한 후 급수별 자격증 취득 가능.

천연화장품, 비누만들기 강좌

◆모집기간 : 7월 2일(월) ~ 8월 30일(월)
◆개강일시 : 8월 28일(화) 오후 2시
◆교육장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세미나실
◆수 강 료 : 등록비 1만원, 수강료 월 4만원
(※단 교재 및 재료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별도)
◆자격취득 : 소정의 과정을 필한 후 급수별 자격증 취득 가능
(※여선교회 사업으로 활용 가능)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사회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 문의처 : 본원 사무실 (☎ 033-241-8801, 8802)
(운교동 춘천 와이신협 춘천기독교방송 3층)
원장: 김성호 목사 부원장: 권영식 목사
☎ 011-9735-5191(간사) 011-372-9100(원장)

포·토·에·세·이



시. 초록바람 한인순(춘천한길교회)

여로(旅路) II

천사의 미소처럼
햇살은 찬란히 퍼져나가고
어느새 왼쪽으로 자리하는 태양의 이동
눈이 부시다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

숨어서 돌 던지는 동심의 아이처럼
사선으로 눈에 와 닿는 태양의 짓궂은 장난
햇빛가리개도 내리지 않은 채 실눈을 뜨고
빠르게 스쳐 가는 자연의 속삭임을
꿈꾸듯이 바라본다
시속 70키로 속에서

지각은 살아서 전면을 주시하고
한가한 아침의 포도(鋪道)는
맑은 공기 속에 빈속으로 나뒹굴고
보기에도 우스운 아주 작은 개천에서
강태공들 시간 죽여 가는 하루의 시작
개구리들이 웃다가 제풀에 숨어버린 시각이다

태양의 짓궂은 장난은 잊은 듯 뒤로 한 채
햇살지락 면사포 쓴 신부의 발걸음처럼
쉬이 오지 않는 검푸른 호수 면을 향하여
비스듬히 누운 채 미끄러지듯 달려간다
호수는 언제나처럼 포도 위에서 손짓하고
마음은 마음에게 말한다
비우라 비우라 비워버리라 한다

건강상식

예수쟁이 의사의 좌충우돌 건강 이야기

"하루 이상 지속되는 설사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빨리 병원에 가라!"



고석연 원장
(가정의학과)

필자가 수련을 받던 전공의 시절에 설사를 호소하는 30대 남자가 입원을 하였다. 평소에 워낙 건강하고, 한창 일이 많을 때라서 설사를 해도 그냥 참고 지내다가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해, 기진맥진하여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환자는 중요한 일 문제로 검사와 치료를 뒤로 미루고, 완치 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을 하였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이 환자를 만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배는 남산만하게 나오고 얼굴, 가슴, 손, 발은 피골이 상접하여서 거의 알아 볼 수가 없었다. 지난 1년 사이에 이 환자는 그때의 설사병의 후유증으로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수액(링겔)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물론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단순한 설사병에 걸렸을지라도 잘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위에 언급한 환자도 설사를 빨리 치료했다면 아마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미루어 짐작해 본다. 설사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심한 설사에 동반되는 전해질 장애와 탈수 증상은 병의 원인을 진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심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사실 아이들의 설사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심한 설사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설사를 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그 아이를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을성이 많고 평소 건강한 젊은 성인들은 설사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 좀 심하다 싶으면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금식을 하면서 누워있는데, 이것은 병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병원에 입원을 하면 금식을 시키지만 병원에서는 수액을 맞으면서 금식을 하기 때문에 가정과 병원에서 금식은 완전히 다르다.

여름은 설사의 계절이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여름 한 철을 온 가족이 설사병이 걸리지 않고 잘 보내도록 하는 것은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하루 이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설사병이 있는가 하면 고열이 나고 입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게 되는 설사병도 있으니 의사인 필자에게도 설사병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그러므로 설사병의 종류와 원인, 치료와 예후를 이야기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명심하자 "하루 이상 지속되는 설사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빨리 병원에 가라!"

봉의산 산상기도회
(CCPN: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
8월 23일(목) 오후9시 봉의산 시민공원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9시 성시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CCPN 준비위원 : 지용친, 김덕용, 이주호, 조영춘, 최승호, 정재호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는 부부생활



"그러므로 우리가 즉음 안으로 밥티스마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크리스토스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는 것입니다"(롬6:4 권위역).

우리는 우리 조상에게서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생활방식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루 대속(벧전1:18-19)을 받아, 영의 새로운 것으로(롬7:6),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롬8:13) 섬기고 있다. 지금도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생명의 신진대사로 자라고 있다(벧전2:2).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벧전2:25; 롬7:4)께서는 부부생활에 대한 과거의 지식, 체험, 개념들이 바른 말씀의 조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베일을 벗고 말씀기록을 읽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새로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받은 그대로 즉, 주 예수님에 의해 우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더욱 더 넘치게 해야 한다(살전4:1-2).

"너희 아내된 자들아, 이같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에 의해 얻고자 함이니, 그들이 두려움을 겸비한 너희의 순결한 행실을 눈여겨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땋고, 금으로 치장하고, 의상을 차려입는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니라.

너희 남편된 자들아, 이같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존중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벧전3:1-7)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골3:19)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엡5:25)

나는 성경에서 뭔가를 끌어내어 이용하는데 혐안이 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자이길 원한다. 복음의 말씀과 복음 스토리의 차이, 복음의 빛과 복음 사상의 차이는, 오직 믿고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겉은 같아보여도, 속결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말씀과 함께 호흡해 본 사람만이 거룩한 속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생활방식으로 부부의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다. 결혼 후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아내의 요청에 양말을 뒤집지 않고 빨래통에 갖다 놓고, 변기에 정자세로 서서 소변을 본 것이며,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 가끔은 함께 식탁을 차리고 믈리기도 하며, 설거지 마친 아내에게 커피를 내 놓으며 눈을 맞추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방식에서(벧전1:18),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부패를 피하여(벧후1:4) 하늘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빌3:20). 다시 말하거니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으로 살자. 그런 삶을 반대할 법이 없다(갈5:23).

성(性)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성의 문제의 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둡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가지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가지느니라.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말라. 다만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동의하여 잠시 그리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너희를 시험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7:2-5; 살전4:4-5) 성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 교회에 그런 장(場)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욱 혼돈되었다.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눈여겨보며, 따를 필요가 있다(빌3:17; 4:9; 히13:7).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요이1-3). [편집부 이영규]

예 향

인내와 신뢰

한 학자가 오래전 영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정치, 경제지도자들의 대다수가 주로 스코틀랜드지역의 크리스천 장로교 중산층 집안의 자녀들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학자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그 가정들의 전통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모유법 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보통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우는 즉시 젖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정확히 4시간 단위로 하루에 6번씩 아이들에게 젖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안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무리 울어도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습득하게 되고, 동시에 기다리면 정확한 시간에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통해 인내하는 훈련과 신뢰의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려운 난관이 올 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상거래를 할 때에도 서로간의 신용을 중요시하게 되어 상공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7 춘천선교대회

◆일시: 9월 2일(주일)~8일(토), 강원대 백령문화관
◆강사: 장경동 목사, 탁지원 소장

북한어린이돕기 난민걷기대회

◆일시: 2007. 9. 8(토) 오전11시, 종합운동장
◆대상: 춘천시민 2,000명(학생,일반)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월드비전강원지부
◆신청방법: 홈페이지(worldvisiongw.or.kr)
춘천기독교연합회(256-1260)

성시만평

이 관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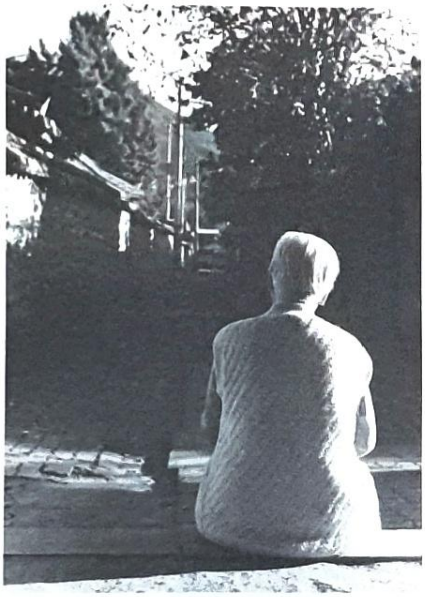


휴가! 어딜가던지 너는 내것이라!

Joseph's English
조셉 잉글리쉬
시작하는 순간, 생생영어가 입에서 "톡-톡"
생각이 바뀌면 쉬운 길이 보입니다.
원어민수준의 발음으로 피라하기와 동시통역사의 순발력있는 강의가 시작됩니다
■ 원어민과의 실제 대화법 노하우 공개
■ 오랜 해외 생활에서 쌓아온 Network 를 활용, 영어코스에 영어자는 처음하고 실속 있는 장단기 영어연수/선교여행 등 실제적인 실습 기회 제공
기초 회화반 오전 10:00-12:00 월,목 Class / 수,목 Class
본격 회화반 오후 07:00-09:30 월,화,목,금 Class
문의 : Tel. 033)256-6114, 252-1004 CP.010-3857-6114 본원 : 효자1동 373-83 춘천경찰서 뒤 효자소방서 옆 예광교회
10년간의 전문통역사
-Waitemata Health Board 국립병원
-World Gospel Bible College 신학대 강의통역
전문 [illegible]
-뉴질랜드 현지 [illegible]NZ Ltd. 통번역회사 운영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Translation and Liaison Interpreting
다양하고 풍부한 영어지도 경험
-North Shore English Academy 강력
교육학, 목회학 전공
-BCNZ 뉴질랜드 신학대학



이대로 좋은가? 갈 곳 없는 노인들



노인문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의지할 곳이 마땅치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 즉, 노인이 겪고 있는 4가지 고통: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가 노인문제인 것이다.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1) 노인인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근대적인 발전에 따른 역작용으로써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현재 11.2%로, 이는 1970년 7.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비율이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된 탓인데,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62세였으나, 85년에 68세, 90년 73세에 이르고 있다. 평균수명은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2) 사회적 여건의 변화

첫째, 사회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즉,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나 제도가 변했다. 이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확대가족에서 확고부동의 위치를 차지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핵가족에서는 그 존재가 미비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 발전에 의한 수명연장에 의해 노년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학기술도 함께 발달하게 되었고, 불치병뿐 아니라 다른 병들도 치료방법이 생겨나 노년기라는 기간이 길어졌다.

셋째, 가치관의 변화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공경심도 높고 예의도 깍듯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가 저하되다보니 그들의 권위마저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실태

1)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2018년에는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가 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령사회로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계승해야할 우리의 미덕이었던 노인봉양 의식마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2050년엔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령층이 되면서 생산 가능인구(15~64세) 1.3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전망이다. 또 2050년에는 가임여성(15~49세) 감소로 출생아 수도 지난해 절반 수준인 22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이 낳을 사람이 없다. 지난해 4813만8000명이던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과 2050년에는 각각 4863만5000명과 4234만300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지난해 1.08명에서 2010년 1.15명, 2020년 1.20명, 2030년 1.2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나야 하지만 총 출생아 수는 지난해 43만8000명에서 2010년 43만4000명, 2020년 37만7000명, 2030년 34만8000명으로 줄고, 2050년에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22만600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데도 가임여성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2) 버려지는 노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다른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는 75년의 78.2%에서 96년에는 28.8%로 감소하고, 혼자 사는 노인은 7.0%에서 53.1%로 증가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정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성경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5:16)"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밤 나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을 한 번 안아드리자!

권 영 식 목사(인재한국평생교육원 부원장)

이달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니 우로니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탄하게 될 것이리 네기 형통하리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샘물교회 23명의 단기선교팀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가 순교를 당하고, 시시각각 죽음의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21명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또한 한민족복지재단을 더 크게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슬람을 더 깊이 이해하며 교회마다의 단기선교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고 안전하게 전개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 나라와 민족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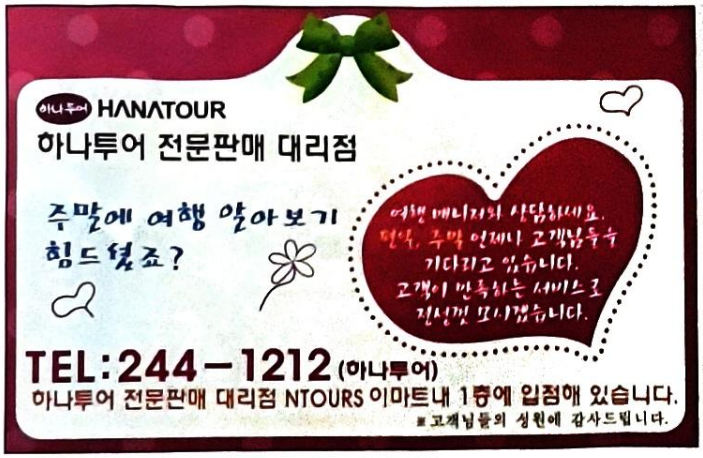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혼란의 정국이 빠르게 정리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특히 어려운 국제적 난국을 지혜롭게 타개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각료들이 되도록.

· 부흥과 선교대회를 위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 타올랐던 성령의 생명적 역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속에 다시 새롭게 점화되어 타오르도록. 9월 2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춘천선교대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도록.

· 강원도와 춘천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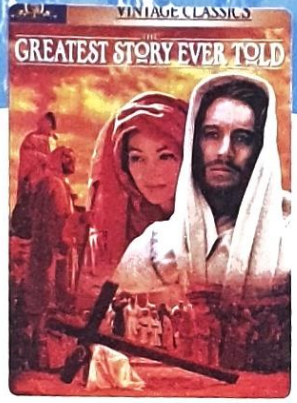
2014동계올림픽 유치실패 이후 새로운 강원도의 미래 비전과 도민들이 함께 일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특히 춘천시에 추진중인 고속도로와 고속전철이 기한 전에 마쳐지고, 균형있는 경제 문화 교육의 발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이뤄지도록.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

위대한 생애(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영화 "위대한 생애"는 "젊은이의 양지(A Place in the Sun, 1951)", "자이언트(Giant, 1956)"로 2번에 걸쳐 아카데미 최우수감독상을 받았으며, 지금은 고전으로 간주되는 서부영화 "셰인(Shane, 1953)", "안네의 일기(The Diary of Anne Frank, 1959)" 등을 만든 명감독 조지 스티븐스(George Stevens:1904~1975)가 1965년에 만든 작품이다. 예술영화의 귀재 잉그마르 베르히만의 "제7의 봉인" 등에 출연한 명배우 막스 폰 시도우(Carl Adolf Von Sydow)가 예수역을 맡았고, <십계>의 모세, <벤허>에서 유다 벤허 역을 맡은 찰톤 헤스톤이 세례자 요한으로 등장한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피사체와 비교적 먼 거리를 둔 촬영기법을 주로 하여 중동의 하늘과 사막의 장대한 풍광을 스크린 화면에 아름답고 섬세한 모습으로 담았다. 마치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기자가 이천년 전 현지로 가서 직접 찍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정교한 카메라 앵글로 시종 시선을 강하게 붙잡는 명품이다.

197분이라는 긴 러닝타임 동안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지만 간간히 기도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사이까지 들어 있다. 구름의 회화적이고 극적인 변화로 하나님의 심경을 표현하는 듯하였고, 예수 역을 맡은 막스 폰 시도우의 강렬한 신비를 느끼게 하는 분장과 눈빛에 거룩함이 깊이 베어 나온다.

예수의 탄생과 고난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스펙터클 서사극으로서 하나의 장엄한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모로 가장 예술적인 품격을 갖춘 명작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교훈적 가치가 있는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피서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편집부 김춘배]



수 지 침

▣ 복통을 일으켰을 때 ▣

동양의학에 '복무온통(腹無溫痛)이라는 말이 있다. 복부가 따뜻하면 아픈 곳이 없다는 뜻으로, 복통은 모두 복부가 차가워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복부가 냉한 이유는 크게 외인(外因)과 내인(內因)으로 나눌 수 있다. 외인은 감기로 말미암아 초기에는 오한 · 발열 · 두통이 일어나다가, 한열(寒熱)이 왕래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지는데, 차츰 복부 깊이 들어가면 한의 질환과 열의 질환으로 나뉜다. 한증이 심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일어나지만, 열증이 심하면 변비 증세를 일으킨다. 내인의 경우에는 음식물에 체해 복통이나 설사가 일어난다. 부패된 음식이나 찬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일어나는데, 평상시에 속이 냉한 경우에는 복통 · 설사가 더욱 악화된다.


A1, 3, 6, 8, 12


사혈한다

복통 시에는 비한방과 A5 · 8 · 12에 오복침을 놓고 40분 정도 지나면 A1 · 3(4) · 6 · 8 · 12에 서암뜸 3~5장을 뜬다. 2~3시간 간격으로 지속해 뜨는 게 좋다. 설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변비증이 있는 경우는 속의 열이 뭉쳐있는 것이므로, 찬 음식을 먹어야 빨리 해소된다. 감기로 인한 복부질환이라면 감기를 함께 다스려야 하고, 음식을 먹고 체한 것이라면 소화 불량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

소아들의 복통도 변비라면 먼저 관장(灌腸)시키고, 설사로 인한 복통이라면 따뜻하게 온보(溫補)시키면서 처치해야 한다. 극심한 복통이 3~4시간 경과되도 진정되지 않을 때는 병원으로 간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준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준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촌감리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중앙교회	
서춘천교회	소망성결교회	
소망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당장로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국민일보춘천지사	
강원기독교화연구소(김기태)		

앤투어	디티피아	쏘안테리어
스타주유소	자연유치원	제시뉴욕
고석복	김준언	김진삼
김길홍	김현철	김영명
민병업	박동환	성기온
신성균	신종철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흥수	이국정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판호
이학규	이병연	임희방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신문사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알 림

칼 럼

좌절은 또 다른 기회



조영춘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예광교회)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실패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아쉬움으로 퍼져갔다. 실상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다. 더욱 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던 지인들의 수고의 땀과 손길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던 터라 아쉬움은 더욱 크다. 그러나 '승리의 태양 앞엔 환호와 기쁨만 있고 실패의 진흙탕 속엔 지혜의 보석이 숨어 있다는 말'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강원도는 더욱 내적 외적인 면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지혜와 함께 동력원을 찾아야 한다.

성경을 보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잠 24:16)이란 말씀이 있다. 진정한 의인은 일곱 번의 넘어짐을 통해 연단되고 강하게 변화된 후 다시 일어나며 승리의 자리에 서는 사람임을 말씀하는 내용이리라. 넘어짐의 실패를 통한 새로운 회복과 도전,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며 쓴잔을 통한 힘찬 도약은 이 땅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필요한 약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속상하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선 안 된다. 실패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더욱 높은 곳을 향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의로움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유치전을 통해 최소한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첫째, 강원도와 평창의 브랜드이다.

모든 세계인들의 눈이 평창을 주목하고 있다. IOC의 원들과 관계자들도 두 번씩이나 억울하게 탈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 그리고 더불어 기대감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강원도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자산이 된다.

둘째,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가 되었다.

경제와 문화 정치와 종교인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소망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기초 돌이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의 특별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레저 · 관광시설 또는 정신문화를 개발 세계화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푸르고 맑은 보석처럼 강원도를 명품화 시키는 땀을 흘려야 한다.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춰 골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지역이기주의를 깨뜨리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명품강원도가 올림픽에 의해서가 아닌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칠전팔기 챔프의 멋진 모습으로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새 도전의 계절이라고 확신해 본다.

❀ 알려드려요

◆어린이전도협회

1) TCE 전도자대학
일시: 8월 20일(월) ~ 8월 25일(토)
낮반 9:00~오후1:00 저녁반 6:30~10:00
모집: 선착순 반별 20명
장소: 본회 사무실 5층 강의실
등록금: 10만원(8.16일 등록마감, 이후12만원)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2007 예스컴 썸머캠프
일시: 1차 8월 2일~4일 / 2차 8월 6일~8일
장소: 충신수양관
주제: 위대한 인생(창6-9장) 강사: 박상철 목사
등록 및 문의: 244-5400 [club.cyworld.com/yescomecamp]
한승연간사 016-369-6994
신유정간사 010-5422-2321

2) YES,COME PRAISE
일시: 8월 18일(토) 오후 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광야훈련
일시: 8월 15일(수) ~ 18일(토)

2) GCTC 수료식(간사수료식)
일시: 8월 18일(토) 장소: 서울CCC본부

3) 신임원 수련회
일시: 8월 23일(목) ~ 24일(금)

4) 영적전투세미나
일시: 8월 27일(월) ~ 30일(목)
장소: 춘천CCC회관
문의: 254-5776

후 CCC어린이집 교사모집 1인
문의: 010-9533-5776

◆IVF

1) 지방사역협의회
일시: 8월 6일(월) ~ 7일(화) 장소: IVF 회관

2) 간사가족수련회
일시: 8월 8일(수) ~ 10일(금) 장소: 제주도

3) 캠퍼스 별 캠프
일시: 8월 13일(월) ~ 31일(금) 장소: 각 캠퍼스
문의: 252-5200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2) OPEN 선교대회
일시: 2007년 8월 15일(수)~18일(토) 3박4일
인원: 선착순 2,000명
장소: 현대 성우 리조트(강원도 둔내)
강사: 로렌 커닝햄, 존 도우슨, 데이빗 헤빌턴, 홍성건, 문희곤 등
회비: 1인 12만원
등록방법: 02)333-8122~3

◆JDM

1) IMTI(선교사훈련과정)
일시: 8월 6일(월) ~ 24일(금)
장소: JDM훈련센터(033-243-6701)

2) 한국 간사수련회
일시: 8월 6일(월) ~ 11일(토)
장소: JDM훈련센터

3) 춘천지구 LTC개강
일시: 8월 23일(목) ~ 25일(토)
장소: 춘천지구회관
문의: 252-3192 / 010-9054-3192

◆GBT성경번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8월 6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삼광교회
말씀: 신요셉 선교사(동아시아 X국)

2) 27회 해외 캠프 위클리프
일시: 8월 6일(월) ~ 19일(주일)
장소: 필리핀 민다나오의 나슬리 SIL센터

3) GMF 20주년기념 선교대회
(GBT, GMP, HOPE, GMTC, KRIM, MKnest, GPTI, 법인사무국)
일시: 8월 13일(월) 오전10시~오후9시
장소: 대전 새로남교회
강사: 홍정길 목사, 이태웅 목사, 이철 목사, 정민영 선교사

4) 위클리프 스쿨 리더수련회
일시: 8월 22일(수) ~ 24일(금) 장소: 대전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GBT춘천지부 사무실 이전-운교동 CBS옆 대용빌딩 2층 예담교회 내 [chuncheon @v2025.or.kr]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월)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몸소리워십댄싱선교단 훈련
일시: 매주(월)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7-374-2440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광이선교회(신광교회 유근일목사)

◆UBMK(올른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8.15 광복절연합예배
일시: 2007년 8월 15일(수) 장소: 신성교회(후평동)
강사: 김중기 목사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문의: 033)256-1260~1

◆2007 춘천선교대회
일시: 2007년 9월 2일(주일)~8일(토)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관
강사: 장경동 목사, 탁지원 소장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문의: 033)256-1260~1

◆춘천기독청년아카데미
일시: 9월 8일~29일 매주 토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주관: 기독청년아카데미
강사: 박득훈, 박용환, 안기홍, 최철호, 최갑주
문의: 02-764-4116, 010-3014-7910

◆월드비전 등록아동 청소년 여름캠프
일시: 8월 8일(수) ~ 10일(금)
장소: 서면 지암리 집다리골 휴양림

◆월드비전강원어린이합창단 여름캠프
일시: 8월 8일(수) ~ 10일(금)
장소: 강릉시 옥계면 한라소망교회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 한마음축제



춘천제일감리교회(담임:원종국목사)는 7월 8일(주일) 오후2시 세신자들을 초청 한마음잔치를 열었다. 이날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원종국목사의 말씀과 가수 현미의 공연 등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일교회는 한마음잔치와 같이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표명했다.

■ 헤브론 축구단과 친선경기



포이멘(목회자)축구선교회(은 헤브론축구선교회(감독: 류영수)를 초청하여 7월 10일(화) 오전11시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중국 연변 연길 40대 조선족축구대표팀과 친선축구경기를 하였다. 헤브론축구선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 선교사와 교회를 돕고, 교회가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축구문화로 다가가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 우리는 젊다



2007 윌드비전 노인복지대학 여름캠프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가평 그린스포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우리는 젊다! 행복하다!'를 주제로 열린 본 캠프에는 노인복지대학 학생 및 등문회 총 57명이 참여하여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구국기도회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진상용장로)는 7월 17일 오전7시 제헌절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제5회 공의와 사랑실천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서는 원종국목사(춘천제일감리교회)가 말씀을 전했으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사람"(렘5:1) 의 주제로 10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회원들 모두는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뜨거운 시간이었다.

신학세미나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목사)는 7월 2일(월) 오후5시 소양성결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신학세미나를 열었다. "21세기 교회 지도자의 영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구약학연구소장 차준희 교수(한세대학교 구약학)는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서를 통해 본 예언자적 사명과 영성, 도덕적 영성회복 등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이학규 원로장로 취임



이학규 원로장로 추대 감사예배와 간증집 『나는 부족하여도』 출판 감사예배가 7월 7일(토) 오후2시 석사교회에서 열렸다. 춘천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김님철감독의 설교, 허태수감리사의 권면의 말씀, 원종국목사의 간증집 서평, 김주환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반천(磐泉)이란 호를 지닌 이학규장로는 44년을 교육공무원에 몸담았고, 부천의 대를 이어 석사교회에서 만30년을 장로로 섬기고 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과 헌신으로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그는 그의 간증집 『나는 부족하여도』을 통해 우리들에게 신앙과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학규장로는 현북희권사 사이에서 2남 2녀를 두었다.

번개건축 사랑의 집을 지어요





한국 헤비타트 자원봉사 축제인 '번개건축'이 7월 30일(월)부터 일주일간 춘천시 신북읍 소밍의 마을에서 진행된다. 이번 번개건축에는 (주)빙그레와 라파즈한라시멘트 대한항공 등 여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으며, 강원대 해비타트봉사단 등 자원봉사자들 약12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여름방학과 휴가를 반납하고 장마 뒤의 볼볕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기쁨으로 사랑의 집을 지었다. 31일 오후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는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춘천해비타트지회는 올해 4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2개동 8가구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가 완료된 사랑의 집은 올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 춘천기아대책기구 이사회



춘천기아대책기구(이사장:원종국목사)는 7월 19일(목) 오전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기아대책기구 본부 사업설명회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아대책 본부는 여름전국기아대책기구 행사와 평양 '락낭심김인민병원' 설립에 춘천지역 이사들과 춘천지역 병원들의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2006년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예정인 평양 락낭심김인민병원은 기아대책기구와 아주대학병원, 북측의 합작으로 설립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함께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도 운영과 후원에 참여할 많은 병원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 성시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목사)와 성시화운동본부 임원은 7월 19일 오후9시 소양교회에서 모여 성시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CCPN(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매달 셋째주 목요일 저녁 9시 봉의산 시민공원에서 나라와 민족, 통일한국, 성시화 등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 제9회 Free 그래픽



춘천시 중·고교 만화동아리연합회(YACA)와 춘천YMCA가 주최하고 춘천시가 후원한 '제9회 청소년 만화동아리 연합회 전시회'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춘천지하상가 멀티비젼실에서 열렸다. 만화 전시회, 코스츔 플레이, 캐리커쳐, 만화퀴즈대회, 만화 페러디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STOP!! 아동학대!!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홍창표)은 7월 28일(토) 오후 1시 철원군 갈말읍에서 '신한은행 강원본부와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하였다. STOP!! 아동학대!!'를 주제로 진행된 본 행사는 신한은행 강원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함께 한 가운데 아동학대관련 사진전, 인식조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배포, 서명운동 등의 내용으로 전개하였으며, 철원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명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앞으로 10월까지 본 기관 관할지역인 9개 시,군(춘천, 회천, 홍천, 양구, 철원, 인제, 영월, 평창, 횡성)에서 매월 1회씩 정기적인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편집부 김미경]

myLG070은?

myLG070은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간 무료, 전국 단일 시내요금, 평생 자기번호를 제공하는 LG데이콤의 새로운 인터넷 전화서비스입니다.

myLG070은 전화 통화뿐만아니라 문자메세지, 전화번호부 등의 편리한기능, 뉴스, 날씨, 쇼핑과 같은 무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집전화 그 다음 인터넷전화

myLG070

가입자간 **무료** 통화 — 언제 어디서나 **myLG070 가입자간** 070번호 무료통화

전국 **단일** 시내요금 — 시내, 시외 **전국 단일** 최저요금

국제전화 **50원**/1분 주요20개국 — **국내최저** 수준의 국제 통화 요금

변하지 않는 **평생** 자기번호 — 이사를 가도 **바뀌지 않는** 우리집 대표번호

데이터통화료 **무료** 무선콘텐츠 — 뉴스, 날씨, 메일, 증권 쇼핑 **정보이용**

인터넷도, 전화도 "One-Stop Upgrade" 한꺼번에 바꾸고,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 최고 속도의 인터넷과 최고 품질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동시에!
  - 광케이블과 광스위치를 이용한 100Mb의 초고속 인터넷 XPEED서비스와 안정적인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XPEED사용료 월 10% 추가 할인
- 쓰던번호 그대로, myLG070 통상한 해택은 그대로
  - 일반은 070번호, 칭신은 기존 집전화 번호 또는 070 번호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부가 서비스 이용료 1,000원)

(부가세별도)

구분	XPEED 광랜(100M)
3년 약정시 XPEED 초고속인터넷	28,000원
XPEED + myLG070 (10%추가할인)	25,200원

인터넷전화 myLG070 요금표

(부가세별도)

구분	표준형	이동전화 할인형	KT집전화
특징	myLG070만이 드릴 수 있는 저렴한 표준 요금제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이 KT표준요금 대비 50% 저렴한 요금제	KT의 가입비형 평상시간 요금 (기본료 최초 이용 시외요금 시외 구분)
가입비	무료		60,000원
기본료	2,000원	4,000원	5,200원
시내요금	38원/3분		39원/3분
시외요금			261원/3분
이동전화 요금	11.7원/10초	7.25원/10초	14.5원/10초
국제전화 요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 50원/1분(유선 착신기준)		미국 282원/1분
부가팩 I	CID + SMS 50건 + 통화연결음 + 정액제 무선콘텐츠		월 2,000원
부가팩 II	CID + SMS 100건 + 정액제 무선콘텐츠		월 2,000원

(부가세포함)

단말기	옵션	일시불	12개월	24개월	36개월
WPU-7000	(WiFi폰 + 무선AP)	99,000원(일시불)	8,250원	4,125원	2,750원



회사에서는 광 "전화+인터넷"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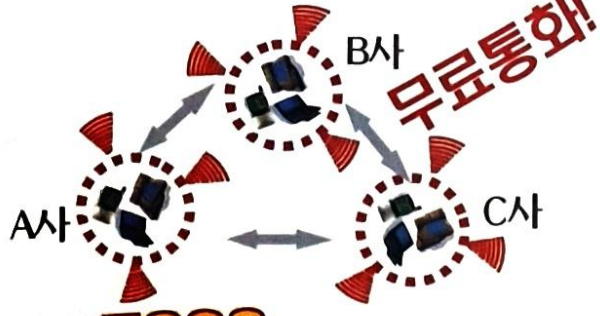
◈ 전화도 인터넷도 "광"으로 통합설치해 드립니다

◈ 인터넷 전화의 장점?

- ▶ 전화요금이 저렴하다
  - · 일반전화보다 20%~35%저렴하다
  - · 국제전화는 95%저렴하다
- ▶ 070지정번호 10개 무료통화된다
- ▶ 전국어디든 가져간다
  - · 070번호는 전국에서 사용된다
- ▶ 전화와 인터넷이 선 하나로 된다
- ▶ 건문전체 무선이 가능하다
- ▶ 건물전체 무료전화 통화

◈ 인터넷 전화의 혜택?

- ▶ 키폰기능제공
- ▶ 광 인터넷 제공
- ▶ 고객환경변화없음(있는 시설 그대로)
- ▶ 전화번호는 그대로 이용가능



엘지데이콤 **가입문의 1644-7033** (합)동양아이텍